

결림굿

공동체 문제 해결하는 민중의 지혜

민족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굿의 본질과 가치는 대동성(大同性)에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대동성(대동성을 가진 굿을 통칭하여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마을회와 이회지, 그 의사결정방식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굿을 준비하는 과정이 공동체정신에 입각하여 이뤄지거나 공동체정신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생성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굿을 치르는 과정이 공동체정신 모두가 하나라는 연대의식을 다시 확인하여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며, 공동체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기능을 하며, 앞으로 일년을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자리를 제공하기도 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노동)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대동성을 치루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그 가치가 좀 더 분명해진다. 굿을 치루는데 필요한 재원을 해결하는 방식을 결림(결금, 금고)이라고 한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민족(민중)공동체가 매시마다 해결해야 할 당면한 사안(마을 제사, 건물, 다리, 도로건설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나름대로의 방법(굿)이다. 마을제사(동제, 산제, 도당굿, 도제, 별신제 등)를 예로 들면, 제사를 치르기 전에 꼭 마당밭이(지신 밭기)를 한다. 이때 공동체성원의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지신(地神)을 밭아주며 한해의 무사태평과 소복(掃福)을 기원한다. 이때 추렴되는 쌀과 돈, 짚 등을 모아 마을제사에 필요한 경비 및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다리공사나 건물신축 등 마을자체만

의 힘만으로는 힘든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타동네에 굿(종물)을 치고자 며칠씩 결림을 하여 해결하기도 하는데 통상 이를 '마당 밭기'와 구분하여 '돌밭기'라 하기도 하고 '결금'이라고도 한다. 조선후기에는 사회경제적인 토대가 변함에 따라 결금을 활용하는 집단이나 결금관에 팔려다니는 전문인이 생겨나게 된다. 대표적인 집단이 '절'(사찰) '남사당패' 등이다. 결금에 대해 좀더 살펴보면, 결금을 하는 목적에 따라 결금(결림), 나무결금(결림), 서당결림, 다리결림, 남결림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다리결림'은 신작로가 나기 시작하면서 크게 성행한 결림으로, 예를 들면 일제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광주 송정리 방향 국도)에 다리를 놓을 때 큰 결림이 일어났으며(김명근편집, 뿌리깊은 나무 민중지서전 3, 1981), 전북 고창군 대산면 중산리에서 중매와 개천에 다리를 놓기 위하여 전문치배를 사다가 2개월 동안 결림을 하여 다리를 놓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서당결림'은 마을에 훈장을 모셔 서당을 개설할 목적으로 결금을 하는 것이다. 필자 조사로는 (1986) 전남 구례군 구례읍에서 1910년대에 마을에서 결금패를 조직하여 한달간 구례, 곡성 등지를 순회하여 결림된 돈으로 훈장을 모셔 서당을 개설한 예가 있었다고 한다. 이 서당결림의 전통은 한일합방 후 민족지사들에 의해 사학들이

무안군 청계면에서는 면(面)에서 필요한 구급차를 구입할 목적으로 면소재지 일대 마을들을 순회하면서 '결금'을 쳐 900여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또한 2월18일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목동이라는 마을에서 매년 지켜 내려오고 있는 도제(마을제사)를 지내면서 하룻동안 '결림'된 100여만원중 70만원을 다음날 도제결산을 위한 마을회의에서 마을회관의 새 업프 구입비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후 마을 어른들(노인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산정리 청년회에서는 1991년 정월달에 청년회 중심으로 결림을 쳐 청년회 1년 예산인 900만원중 2/3를 결림된 돈으로 충당하였으며, 금년에도 2월18-19 양일간에 걸쳐 결림을 하여 작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결림하였다. 위의 예들은 마을굿의 자생적인 토대가 거의 와해된 농어촌 현실(농어촌의 폐쇄화, 이농, 기독교 문화 침투, 소비산업주의 영향 등)에 비추볼 때 마을공동체적 심성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로서는 접하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다. 부연하면, 우리민족이 민중생활 속에서 각기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이 결림을 통해서였으니 우리가 결림정신과 그 방식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이며, 그 가치와 특성은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결림의 본질은 민중들의 생활공동체의 문제와 일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결림을 하는 목적은 개인의 돈벌이나 치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성원 모두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결림을 할 때는 강제적으로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굿을 받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마당밭이(지신밭기)를 할 경우 방문한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대문을 들어설 수가 없다. 이 허가를 받기위해 치는 굿이 바로 '문굿'이다. 결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남의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굿'을 치며 이 문굿을 치는 과정에서 시험까지 치러야 한다. 결금패의 방문을 받는 마을에서는 결금패가 왔다가면 금전적으로 피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금패를 받지 않으려 하며 어려운 문제를 내서 굿을 잘치는지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허락을

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탁월한(고도의) 우리민족 특유의 지혜스런 문화라고 하겠다. 세상 모든일이란(특히 예술행위 일 경우) 효능이 없으면 일도 안되고 하는 사람이 신명이 안난다. 구경꾼들도 굿판을 살피는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돈을 안내도 나름대로 맛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구경꾼이 신명이 올라 물질적인 것으로 기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흥미 없으면 떠나기도 된다.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굿판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결림의 한 표현이며, 그런 열린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림정신(굿의 세계관)이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결림을 우리는 '굿'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가 대중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위에서 살펴본 사실들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많은 가르침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박 홍 주 <'굿' 연구소 회원>

문화단신

'안티고네' 선보여

극단 '전원'에서는 '제8회 정기공연'을 맞아 소프라노의 삼부작 비극을 '장 아누이'가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안티고네'를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오는 4월3일부터 30일까지, 오후 4시 30분과 7시30분에 성좌소극장(구 동송동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과 두 오빠의 권력다툼과 죽음, 외삼촌의 왕위계승등 많은 사건을 다루는 이 작품은 안티고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망하지만 진한 감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

다. 이 극의 작가 '장 아누이'는 갈등과 불만, 타인과의 불가능한 관계 등을 가족이나 사회의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개인의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다. 극단 '현장' 마당극 공연 노동연극을 전문으로 공연하는 극단 '현장'이 오는 4월1일부터 5일간 오후 4시30분, 7시30분, 하루 2회에 걸쳐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마당극 '공해공화국'을 선보인다. 극단 '현장'의 작품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 무대에 올리는 '공해공화국'은 내용의 충실함을 더하기위해 '공해추방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창작하였다. 서로 다른내용의 주제인 '세미방'으로

구상된 '공해공화국'은 우리전통 탈춤의 형식을 빌려 마당극의 전형적인 구조를 이루고있다. <문의: 762-7320, 743-1266> '베니스 상인' 상연 순수 정통리얼리즘 연극만을 추구하는 극단 '성좌'가 오는 4월 16일부터 13일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25회 정기공연'으로 셰익스피어원작의 '베니스 상인'을 오후 4시30분, 7시30분에 25회 공연한다. 창단 24주년과 연출가 권오일 씨의 연출작품 50회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 연극은 중견연극 배우 전무송과 영화배우 김성령이 각각 '벤티니오'와 '포요서'로 분하여 출연한다. <문의: 741-0051, 745-1214>

안중근 의사 추모공연 극단 '산맥'은 안중근의사 서거 82주년 추모공연을 오는 4월3일부터 12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대학로 예술소극장에서 '한 두개 술이 떨어졌던들...'을 공연한다. 이 작품은 무계중심을 안중근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에 두기보다는 그를 둘러싼 현실의 복합성과 개연성, 즉 그 당시 민족과 민중의 삶에 돌음으로써 민족 독립운동사적 관점에서 재조명 한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구현과 희망의 참 의미를 풍요려 하는 이 작품은 극단 '산맥'의 삼일연출가 겸 문예평론가인 서광석씨가 연출한다. <문의: 744-2124>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영애는 대학을 순탄하게 들어간 '영애'는 대학과 사회의 참담한 현실에 눈뜨게 되면서 자신의 환경을 버리고 공장을 들어오게 된 것이다. 두사람은 다시금 대립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진수는 가치관의 균열을 느끼면서 자신의 회색인간일수 밖에 없다고 강론하고 영애는 이 사회의 방향이나 성격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갈등구조는 빚어진다. 구사대 투입이라는 정점에서 진수는 결국 구사대로 참여하게 되고 영애는 농성현장에서 린치를 당한다. 영애를 구출하려는 진수의 노력은 원력에 의해 실패, 영애는 끌려가고 진수는 돌아선다. 연출자는 이 두 인물을 우리의 자화상으로 보여주며 선택의 기로에서 주체성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진수의 인물성상은 이 시대에 냉소주의를 드러낸 전형적인 인물이다. 가진자에 대해서 결코 후회적일 수 없지만 변역시력에 대해서도 동참하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냉소를 일관하는 인물이다. 그의 고된 역시 선택을 강요당하는 중산층의 고민이며 이 작품에서 연출자는 냉소주의와 현실주의의 발아과정을 그리고자 한다. 새로운 시도로서의 키노드라마 형식과 개그, 소품활용등은 참신한 반면 예상한 측면도 없지 않았으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으로써 극단 '천지'의 이 작품은 관객에게 가까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마 정 미 <신앙대학원·석사2기>

연극평

정체되었다고 보여지는 민족극들이 최근에 이르러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극복하는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달 31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공연되고 있는 극단 '천지'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김상열작·연출)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 우리나라 연극계에 있어서 연극이 그 시대 사회제반 현실을 탐구하고 그려내는 일에 진지해야 하며 아울러 그 문제제기와 지향점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담아내야 한다는 순수한 열정을 지니지 않은 연극인은 없을 것이다. 마당극에선 특히 그러한데, 그들의 진지한 현실탐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오래된 이야기 관작이 식상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우리 연극계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안티테제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은 소재중심주의와 이에 따른 내용의 도식화, 양식의 도식화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모순에 노출된 계층을 조망하려는 노력은 그 정당성과 당위론적인 결론 때문에 그 주제의식에 매몰되고 오히려 자칫하면 감동을 저하시켰기 때문이다. 어쨌든 누구보다 고민과 성찰이 많았을 연극계에서 그런 이유로 인하여 나름대로 기존의 형식을 탈피, 새로운 양식을 모색해 보는 실험적 시도중의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이다. 연극과 영화를 결합한 키노드라마라는 양식을 도입한 이 작품의 형식은 그 원류를 기존의 평면적 극장 구조를 깬 다양한 무대구조와 영상기 및 영상물을 활용한 독일 혁명극의 연출가 에르빈 피스카토르의 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형식에서의 실험적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인물의 전형성을 깨뜨리는 시도가 엿보이는데 그 인물묘사와 심리묘사가 이 극의 주요 플롯이다. 극중인물 오진수는 막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일하여 사장 눈에 들고 야간대학을 졸업하여 본사 직원으로 발령, 노조의 동태파악 업무를 맡는다. 현장에서 만나는 소꿉친구 최영애는 그가 어린시절 부러워 했던 부유한 가정의 인물. 그러나 아이러니



◀ 굿을 치기 전에는 반드시 '문굿'을 해야한다
▼ 굿은 공동체의 연대적식을 다져준다

대학주보의 미래, 바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수습기자 모집 광고 ②

“ 밝은 새 역사의 미래와 신화 창조의 주역이 될 희망찬 이들이 가야할 길 바로 대학주보가 열어 나가겠습니다. ”

수습기자모집

오는 4월 6일 원서접수 마감

- 대상 : 양평초등학교 신입생
- 모집부문 :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 기자, 첫(한화) 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 기자, 사진기자
- 선발방법 및 일정 1)시험전형 : 주지토론, 인성조사, 작문 및 면접 2)시험일시 : 4월 6일 3)시험장소 : 양평초등학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양평초등학교 (구내전화 0095) 수원시 양평초등학교 (구내전화 2056)
- 원서접수 마감 : 4월 6일 오후 6시까지

대 학 주 보 사